

현안과 과제

BEYOND the China

- POST China,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기회요인과 시사점

목 차

■ BEYOND the China

- POST China,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기회요인과 시사점

1.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시장의 중요성	1
2. 한국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관계	2
3. BEYOND the China	10
4. 시사점	12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동북아연구실 : 이 용 화 연 구 위 원 (2072-6222, yhlee@hri.co.kr)

 : 이 해 정 연 구 위 원 (2072-6226, hjlee@hri.co.kr)

1. 아세안경제공동체(AEC1) 시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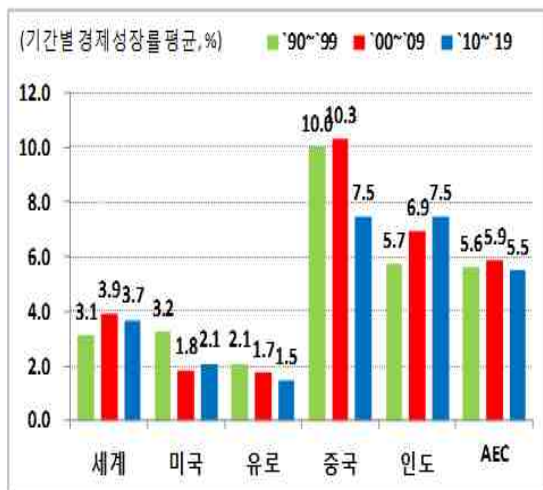
○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사드 배치로 악화일로에 있는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주목받고 있음

- 최근 한반도 내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對한국 경제 보복이 현실화
 · 최근 위생 및 검역(SPS) 강화 등 비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한류,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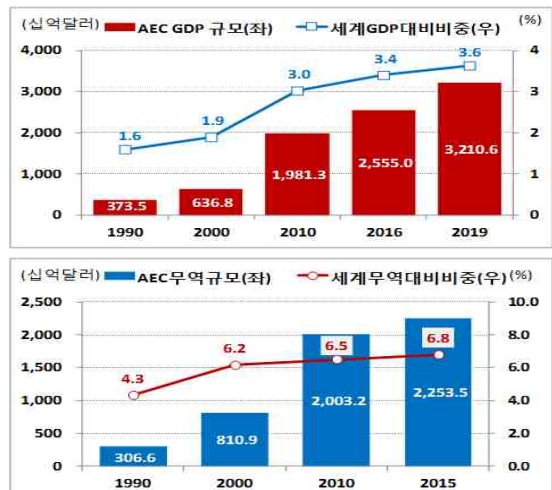
- 한편 아세안경제공동체 시장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중국의 대체지로 주목
 · 아세안경제공동체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부터 2019년까지 평균 5.5%로 세계 경제 성장률 3.7%를 상회
 · 10개국의 GDP 규모는 1990년 3,735억 달러에서 2016년 2조 5,555억 달러로 약 7배 증가, 세계 GDP 대비 비중은 동기간 1.6%에서 3.4%로 확대
 · 또한 10개국의 무역 규모는 1990년 3,066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2,535억 달러로 약 7배 증가, 세계 무역 규모 대비 비중은 동기간 4.3%에서 6.8%로 확대

○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경제공동체의 관계를 알아보고, POST China로서 아세안경제공동체 시장의 기회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 AEC의 경제 성장률 추이 >



< AEC의 경제적 위상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

주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회원국 단순평균.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 WTO Stat.

주 : GDP는 명목달러 기준.

1)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약칭으로 2015년 12월 31일에 출범.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아세안 창설 5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

2. 한국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관계2)

①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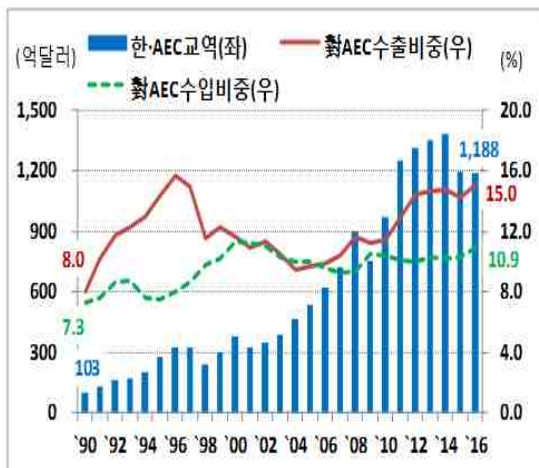
○ 2007년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한국의 對 AEC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0%대의 교역 비중을 유지, 최근 무역수지도 지속 증가 추세

- 지난 20여 년간 한·AEC 간 무역은 연평균 약 9.9%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 1990~2016년 사이, 한국의 수출입 총액 중 對 AEC 비중은 1990년의 8.0%, 7.3%에서 2016년 15.0%, 10.9%로 확대
 - 동기간, 한·AEC 간 무역규모는 103억 달러에서 1,188억 달러로 약 12배 증가
 -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표를 계기로 한국의 對 AEC 수출은 연평균 7.5%씩 증가
 - 한편 한국의 對 AEC 무역수지 흑자는 1990년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속 증가하여 최근인 2016년에는 302억 달러를 기록

- 최근 한국의 對 AEC 교역 비중도 10%대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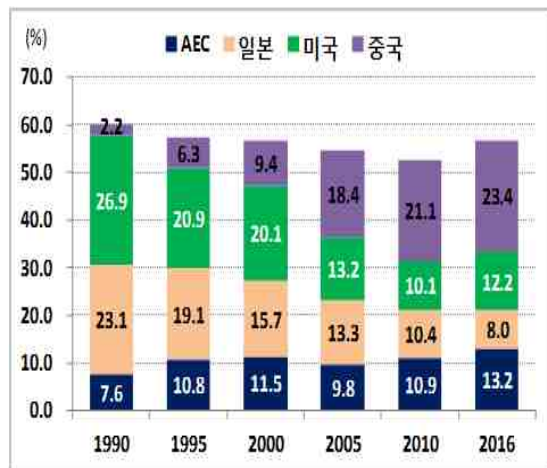
- 1990~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 일본 교역 비중은 23.1%에서 8.0%로 꾸준히 감소, 동기간 對 미국 교역 비중도 26.9%에서 12.2%로 감소
- 반면, 對 AEC 교역비중은 2005년 이후 10%대 유지, 2016년에는 13.2%를 기록

< 한국의 對 AEC 교역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경연 계산.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교역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경연 계산.

2) 본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 “아세안 시장이 떠오른다 : 한-ASEAN 교류 현황과 시사점”, (2015.02.04)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보고서임.

○ 한국의 對 AEC 교역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중심

- 한국의 對 AEC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석유제품 등으로 품목이 확대
 - 1990~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 AEC 반도체 수출금액은 7.1억 달러에서 117.1억 달러로 확대
 - 특히, 동기간 석유제품은 1990년 0.1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71.8억 달러로 크게 증가

< 한국의 對 AEC 상위 5대 수출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 위	1990년		2000년		2010년		201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반도체	7.1	반도체	59.7	석유제품	83.3	반도체	117.1
2	철강판	3.3	석유제품	10.1	반도체	77.1	석유제품	71.8
3	컴퓨터	2.6	전자관	7.6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41.8	무선통신기기	56.3
4	인조장 섬유직물	2.6	무선통신기기	6.7	철강판	32.3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42.0
5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2.2	합성수지	6.3	합성수지	19.7	평판 디스플레이	2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

- 2016년 기준 한국의 對 AEC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10.8%(48.2억 달러), 무선통신기기 9.1%(40.1억 달러), 석유제품 4.3%(19.2억 달러) 등임

< 한국의 對 AEC 상위 5대 수입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 위	1990년		2000년		2010년		201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원유	12.6	반도체	35.7	반도체	75.8	반도체	48.2
2	목재류	8.1	컴퓨터	28.1	원유	54.6	무선통신기기	40.1
3	천연가스	4.6	천연가스	25.5	천연가스	54.2	의류	36.6
4	석유제품	4.1	원유	18.8	석탄	32.2	천연가스	33.2
5	반도체	3.5	석유제품	11.9	석유제품	21.3	석유제품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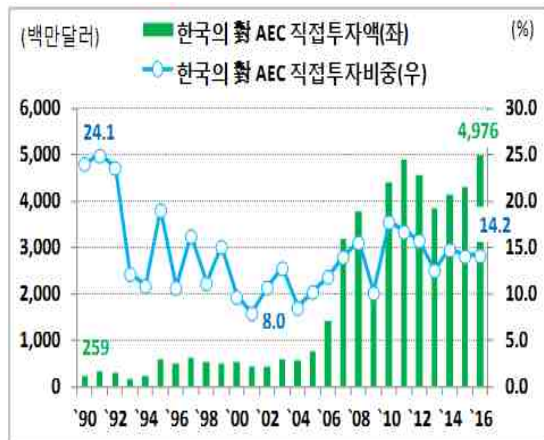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

②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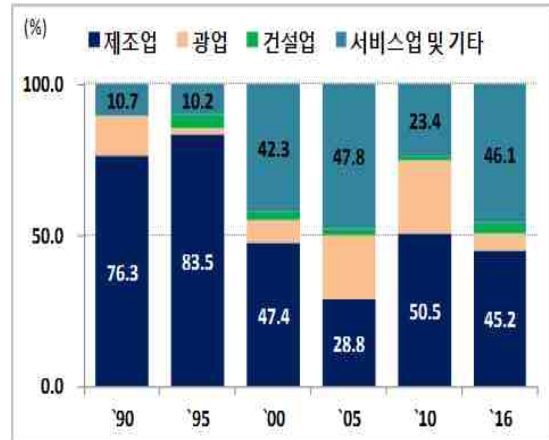
○ 한국의 對 AEC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업종도 재편되고 있음

- 한국의 對 AEC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對 중국 투자를 상회
 - 한국의 對 AEC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90년 2.6억 달러에서 2016년 49.8억 달러로 약 19배 증가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AEC 비중은 1990년 24.1%에서 2001년 8.0%까지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14.2%로 회복
 - 한편 2010년 이후 한국의 對 AEC 투자는 중국 투자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중국의 33.0억 달러보다 약 17억 달러 많은 49.8억 달러를 기록
- 한국의 對 AEC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및 기타, 광업으로 업종이 다양화되는 추세
 - 한국의 對 AEC 제조업 투자 비중은 1990년 76.3%에서 2016년 45.2%로 31.1%p 축소
 - 한편 서비스업 및 기타(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운수업 등)의 직접투자 비중은 동기간 10.7%에서 46.1%로 약 4배 이상 증가
 - 1990년대는 제조업 투자 비중이 약 65%를 상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서비스 및 기타, 광업 등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업종이 다양화

< 한국의 對 AEC 해외직접투자 규모 > < 업종별 對 AEC 해외직접투자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AEC의 對 한국 외국인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AEC의 對 한국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규모의 10% 수준으로 나타남
 - 1990~2016년 사이 AEC의 對 한국 외국인투자 규모는 연평균 21.9%의 빠른 속도로 증가
 - 투자 규모는 1999년 22.2억 달러를 정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5년 28.5억 달러로 확대
 - 2010년 이후 AEC의 對 한국 외국인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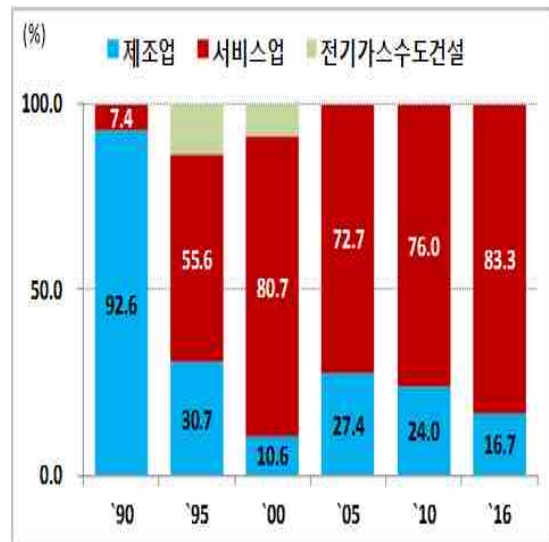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 1990년 AEC의 對 한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가 전체 아세안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2.6%, 7.4%로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큼
 - 반면, 200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
 - 2016년 제조업 비중은 16.7%로 감소, 서비스업비중은 83.3%로 대폭 증가

< AEC의 對 한국 외국인투자 추이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 비중은 한국전체 외국인투자 가운데 AEC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AEC의 업종별 對 한국 외국인투자 비중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경연 계산.

③ 인적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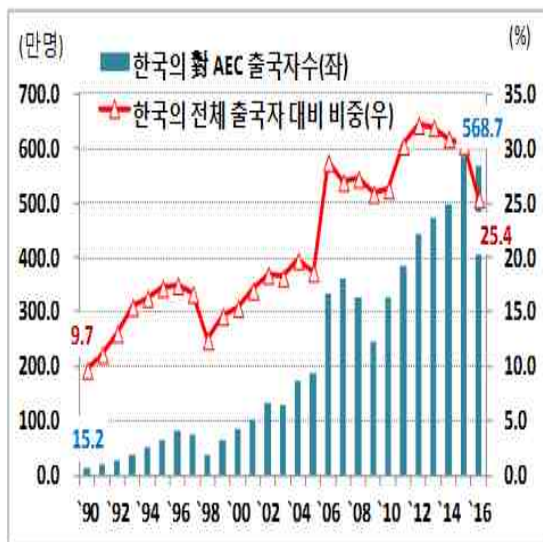
○ 최근 한·AEC 간 인적교류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

- 1990~2016년 사이 한국의 對 AEC 방문객수는 31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한국 전체 출국자 중 對 아세안의 비율도 15%p이상 증가
 - 1990년 한국의 對 AEC 출국자는 15.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출국자 가운데 9.7%를 차지
 - 반면, 2016년 한국의 對 AEC 출국자는 1990년 대비 37.4배 증가한 568.7만 명으로, 전체 출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로 확대됨

- 동기간, AEC의 對 한국 입국자수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990년 AEC의 對 한국 입국자수는 20.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입국자수의 6.9%를 차지
 - 반면, 2016년 입국자는 1990년 대비 11배 증가한 221.6만 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9%로 확대됨

- 이에 따라, 한·AEC 간 인적교류 규모는 1990년 35.5만 명에서 연평균 12.7%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790.3만 명(1990년 대비 약 22배 증가)을 기록

< 한국의 對 AEC 출국자 추이 >



자료 : 한국관광공사, 관광R&D센터.

< AEC의 對 한국 입국자 추이 >



자료 : 한국관광공사.

④ 한류 콘텐츠

○ 최근 한류의 전파로 한국의 對 AEC 문화 콘텐츠산업 수출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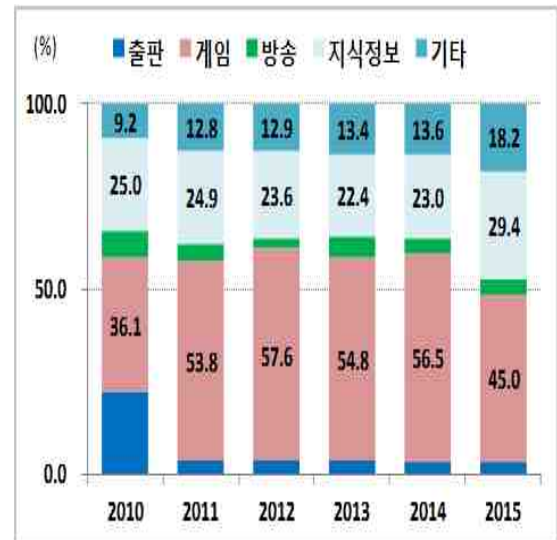
- 한류현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콘텐츠산업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
 - 한국의 對 AEC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10년 6.7억 달러에서 2014년 9.6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5년 8.0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평균 3.6%씩 증가
 - 한국의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 가운데 AEC의 비중은 2010년 22.0%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4.6%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유지
- 대표 수출 콘텐츠는 게임과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
 - 한국의 對 AEC 대표 수출 콘텐츠는 게임, 지식정보, 출판, 방송 등으로 요약
 - 2015년 기준으로 게임의 비중이 45.0%로 가장 많고, 지식정보(29.4%), 음악, 캐릭터, 만화, 영화 등이 포함된 기타(18.2%) 순으로 집계
-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인구 3위(약 6억 3,000만 명)로 향후에도 한류의 전략적 수출 요충지로 각광

< 한국의 對 AEC 한류 콘텐츠산업 수출액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주 : 비중은 한국의 對 세계 콘텐츠산업 수출액 대비 AEC 수출액 비중임.

< 품목별 對 AEC 한류 콘텐츠산업 비중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주 : 기타에는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영화, 캐릭터, 콘텐츠솔루션이 있음.

3. BEYOND the China

① B : 중산층 확대(Broaden Middle Class)

○ 아세안 중산층의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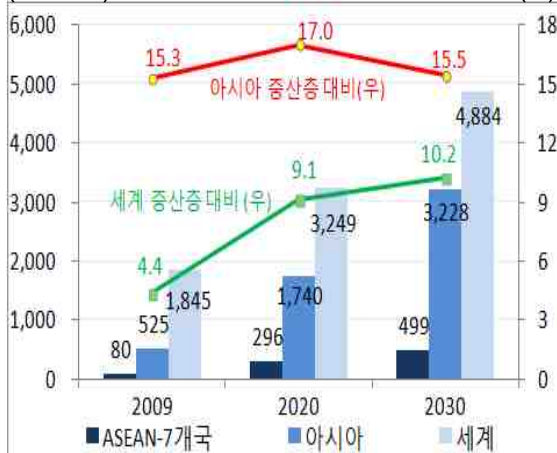
- 아세안 중산층의 급증은 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아세안 중산층의 규모는 2009년 0.8억 명에서 2030년 4.9억 명으로 약 5.2배 증가할 전망
 - 전세계 중산층 대비 아세안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4.4%에서 10.2%로 상승할 전망, 아시아 전체 중산층 대비 비중도 15%를 상회

② E : 신흥시장으로 부상(Expansion to Emerging Markets)

○ 빠른 성장세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 1인당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
 - 아세안 10개국의 1인당 GDP는 2009년~2019년까지 연평균 7%씩 증가할 전망
 -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1인당 GDP는 동기간 연평균 약 9% 증가하며, 아세안 국가 중 빠르게 성장

< 아세안 7개국의 중산층 인구수 > < 아세안 국가의 1인당 GDP 현황과 전망 >
(백만 명) (명목 천 달러, %)



구분	2009	2016	2021	'09~'21 연평균
브루나이	31.3	24.7	41.9	2.7
캄보디아	0.7	1.2	1.7	8.0
인도네시아	2.5	3.6	5.1	6.8
라오스	0.9	1.9	2.5	9.9
말레이시아	7.4	9.5	15.3	6.7
미얀마	0.8	1.3	2.1	9.5
필리핀	1.9	3.0	4.7	8.9
싱가포르	38.6	53.1	60.9	4.2
태국	4.2	5.7	7.0	4.7
베트남	1.2	2.2	3.1	9.1

자료 : OECD(2010), 현대경제연구원(2015).
 주1) 중산층은 1인당 일평균 지출 10~100달러 인 그룹으로 정의.
 2)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는 제외.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

③ Y : 젊은 노동시장 구조(Young Population 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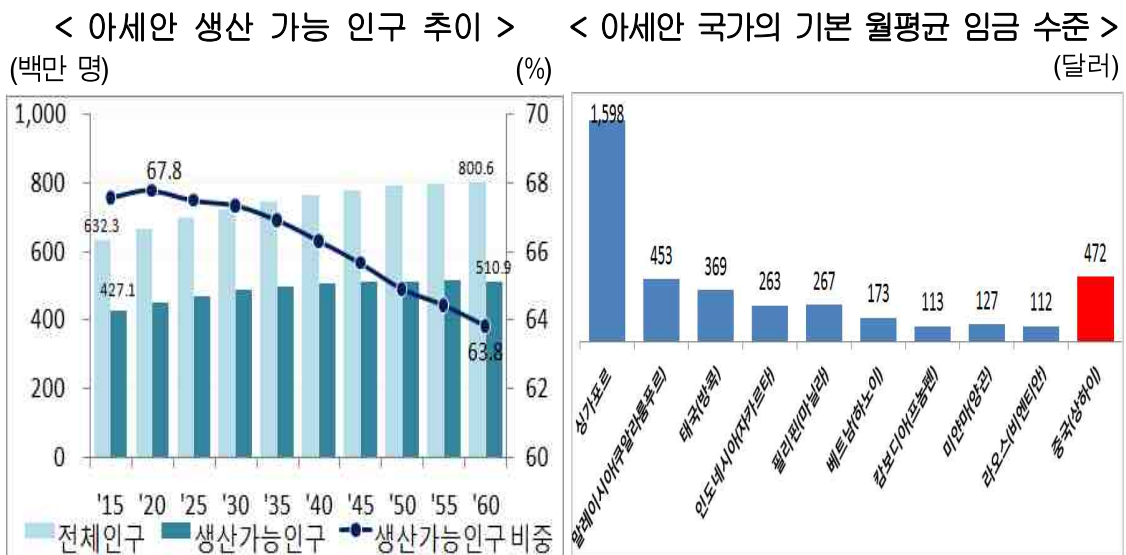
○ 풍부하고 젊은 노동시장구조 지속

- 생산가능인구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인구 증가
 - 아세안의 인구수는 2015년 6.3억 명에서 2060년 8.0억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약 7.9%, 아시아 인구의 15.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의 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205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아세안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비중은 2035년 67% 수준을 유지할 전망

④ O : 새로운 생산기지로 각광(Outstanding Production Base)

○ 저렴한 임금을 통한 생산기지로써 잠재력 확보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경쟁력
 -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 아세안 국가의 임금 수준은 중국보다 낮음
 - 태국의 공장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중국의 78% 수준
 -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의 공장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각각 중국의 24% 수준에 불과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주 : ASEAN 회원국 10개국 전체 인구 기준.

자료 : JETRO(2014).
주 : 공장 근로자 기준.

⑤ N : 잠재력이 큰 광물 자원(Potential of Natural Resources)

○ 아세안 국가들은 다양한 광물자원 부국으로 막대한 개발 잠재력 보유

- 아세안 국가 대부분에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
 - 인도네시아는 주석(세계 매장량 2위), 금(세계 5위), 니켈(세계 6위), 보크사이트(6위) 천연가스(세계의 1.6%)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
 - 말레이시아는 이트륨(세계 5위), 주석(세계 6위), 희토류(세계 7위) 등을 보유
 - 필리핀은 니켈, 셀레늄 등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 등을 풍부하게 보유

< 아세안 주요국별 광물 자원 매장량 현황 (2016년 말 기준) >

구 분		매장량(A)	세계 매장량(B)	A/B(%)	세계 순위
말레이시아	주석	25	470	5.3	6
	이트륨	1.3	54	2.4	5
	희토류	3	14,000	0.02	7
	토륨	0.45	140	0.3	7
	천연가스 (조m³)	1.1	185.7	0.6	-
	오일 (십억 배럴)	3.7	1,687.9	0.2	-
태국	주석	17	470	3.6	-
	석탄	123,900	89,153,100	0.1	-
베트남	보크사이트 및 알루미나	210,000	28,000,000	7.1	4
	티타늄	160	70,000	0.229	12
	석탄	15,000	89,153,100	0.16	-
	천연가스 (조m³)	0.6	185.7	0.3	-
	오일 (십억 배럴)	4.4	1,687.9	0.3	-
인도네시아	주석	80	470	17.0	2
	동	2,800	69,000	4.1	8
	금	0.3	5.4	5.6	5
	니켈	390	7,400	5.2	6
	보크사이트	100,000	2,800,000	3.6	6
	석탄	2,801,700	89,153,100	3.1	-
	천연가스(조m³)	2.9	185.7	1.6	-
	오일 (십억 배럴)	3.7	1,687.9	0.2	-
필리핀	니켈	110	7,400	1.48	12
	셀레늄	0.05	9.8	0.51	7
라오스	주석	11,290	-	-	-
	철(억 톤)	10	-	-	-
	보크사이트 (억 톤)	20	-	-	-
	암연 (억 톤)	8511	-	-	-
	석고 (억 톤)	120.18	-	-	-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7, BP Statist Review of World Energy 2016. 현대경제연구원(2015).

⑥ D : 인프라 수요 증대(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 아세안 국가 간 인프라 투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

-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의 인프라 취약성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음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경쟁력은 수준은 144개국 가운데 90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이에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
 - 미얀마는 2030년까지 3,20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수요 발생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350억 달러, 1,700억 달러, 1,05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
- 이를 위해 최근 국경 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세안인프라투자기금(AIIF),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 및 중국의 ODA 등을 통한 아세안 국경간 인프라 투자 확대

< 아세안 국별 인프라 경쟁력 수준 >

구 분	순위 (144개국 중)	점수 (7점 만점)
브루나이	140	2.01
캄보디아	107	3.05
인도네시아	56	4.37
라오스	94	3.38
말레이시아	25	5.46
미얀마	137	2.05
필리핀	91	3.49
싱가포르	2	6.54
태국	48	4.58
베트남	81	3.74

< 아세안 국별 인프라 수요 현황 >

구 분	인프라 수요 규모 전망
미얀마	3,200억 달러(2030년까지)
태국	1,050억 달러(2013~20년)
말레이시아	1,000억 달러(2013~20년)
베트남	1,700억 달러(2013~20년)
캄보디아	120~160억 달러(2013~20년)
필리핀	1,100억 달러(2013~20년)
인도네시아	2,350억 달러(2013~20년)
싱가포르	157억 달러(2014년)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2015. 현대경제연구원(2015).
 주 : 인프라 경쟁력 교통인프라 6개 지표와 전기 및 통신 인프라 3개 지표로 구성.

자료 : KPMG, An overview of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in ASEAN(2014). 현대경제연구원(2015).
 주1) 라오스와 브루나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생략.
 주2) 인프라는 교통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 등이 포함.

4. 시사점

- 최근 아세안 시장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아세안의 다양한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첫째,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검토를 통해 중국 시장과의 차이에 대해 점검이 필요
 - ‘Post China’ 전략 구상 등을 통한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물론 새로운 대외サプライ체인 구축을 위한 중장기 플랜 구축 강구
 - 둘째, 아세안의 경제 성장에 따르는 맞춤형 시장 공략 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 접근 방안 모색
 - 저임금에 기반한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기존 전략을 탈피, 확대되는 내수 소비시장과 두터워지는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공략
 - 소득 증가 이후 발생할 주요 수요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 맞춤형 진출 방안 수립
 - 셋째, 아세안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그동안의 개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ADB, AIIB 등 국제금융기구의 활용에 대한 강구책 모색
 - 향후 아세안 인프라 시장의 잠재성이 큰 만큼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진출 전략 마련
 - 넷째, 에너지 등 자원 부문의 중장기 개발·활용 전략을 수립, 자원개발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정부, 민간, 공기업이 협력하여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주개발 물량 확보하면서, 기존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
 - 다섯째, TSR~TCR~TKR 연결 등 복합물류망 구축을 통해, 역내 다양한 인프라 시너지 극대화를 꾀해야 함
 - AIIB를 활용한 남·북·중·러 등 다자간 인프라 협력을 위해 단계별 접근이 필요
 - 끝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별 진입장벽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